



[뉴스] '농협대통령' 누가되나 13명 출사표 02



Economy

코스피	2175.17 (-22.50)	코스닥	674.02 (+4.19)
금리 (미국 3년)	1.33 (-0.03)	환율 (원-달러)	1158.10 (+1.70) (2일)

'입김세진'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니

삼성·현대차 등 99社 두자리 지분 쥐락펴락

5% 이상 지분 보유 313곳 달해 네이버·모비스 등도 10% 이상 기업 자율성 훼손 우려 목소리

주식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123조원에 달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7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다.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장사들 사이에선 무리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월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9개 상장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13곳에 달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곳이 18곳이다. 235개 상장사의 2대주주이며, 59곳의 3대주주로 등극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량상장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10.49%를 소유하며 단일 최대주주로 있다. 오너일가인 이건희 회장 (4.18%),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0.91%), 이재용 부회장(0.70%)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으로 보유 지분 시가총액은 35조3700억원 정도다.

이 외에 SK하이닉스(10.01%), 네이버(9.48%), 현대차(10.05%), 포스코(11.72%)와 금융지주사 등의 지분율도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신세계(14.37%)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99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대기업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2018년 말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유 지분은 각각 9.25%, 8.70%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지분을 대량 매수하며 10% 이상으로 늘렸다.

이 외에 네이버(11.1%), 현대모비스(11.26%), LG화학(10.28%), SK텔레콤(10.98%) 등 총 30곳의 지분율도 최근 1년 동안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5% 이상 늘린 곳도 43곳에 달한다.

<2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김영수 대법원장,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유남석 현재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세액공제로 5G 망 투자 촉진

과기부, 1등 5G 국가 도약나서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낮춘다.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부터 글로벌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수도권 지역 기준 1%에서 2%로 높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입하고 드론 서비스 개발도 67억원을 투자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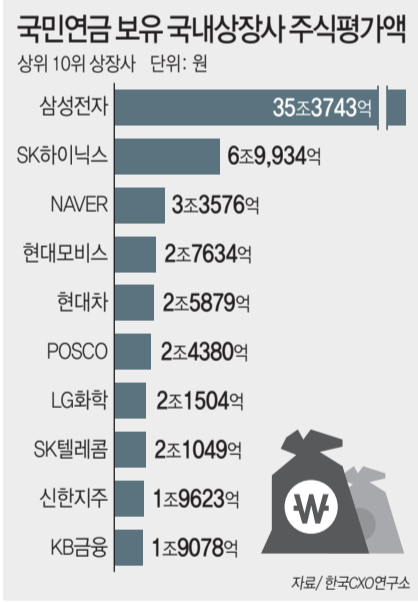
한화케미칼-큐셀 합병 '한화솔루션' 공식 출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가 합병해 '한화솔루션'이 공식 출범했다.

한화케미칼은 2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 등을 담은 정관 변경 건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인 한화솔루션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통합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큐셀 부문 대표이사와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도 통과됐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따라 이구영 케미칼 대표, 김희철 큐셀 대표, 류두형 첨단소재 대표 등 3개 부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2020년은 '함께 행복'의 해

2020, 똑같은 두 숫자가 더해진 한 해처럼 행복에 또 다른 행복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되길 함께이기에 '행복'이 더 커지는 새해가 되길 SK도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